저소득계층 LPG사용자 지원방안 건의

한국LP가스공업협회

협회는 최근 LPG가격 폭등으로 저소득계층 LPG사용자의 연료비부담이 급증하여 이를 완화시키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의서와 지원방안을 게재한다.

건의서 수 신 : 민주당, 한나라당 대표
참 조 : 정책위의장
제 목 : 저소득계층 LPG(프로판) 사용자 지원방안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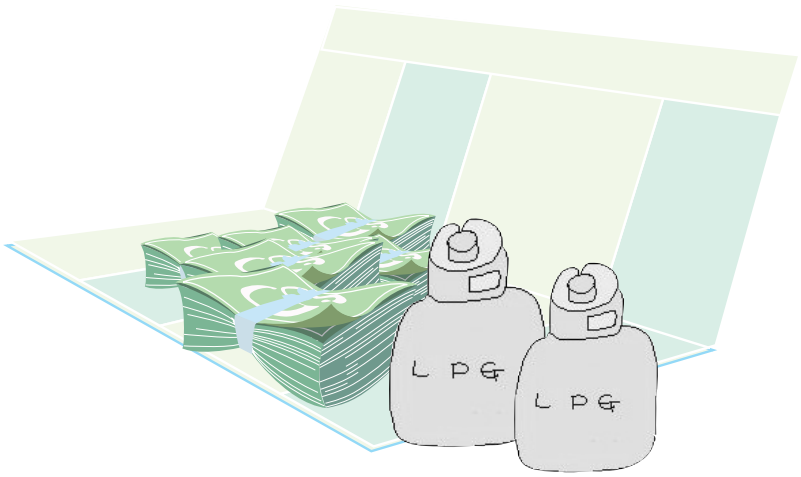
1. 귀 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PG(프로판가스)는 LNG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과 도시 저소득층(산동네 등) 등 전국 약 733만가구(21,000 천명)의 취사/난방연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LNG 도시가스 대비(유효열량 기준) 2.3배정도 비싼 LPG (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연료비마저 비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정부에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08.6.8)을 마련하였으나, LPG(프로판가스)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서민 생활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붙임과 같이 LPG업계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저소득계층 LPG(프로판) 사용자 지원방안 1부. 끝.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

저소득계층 LPG사용자의 지원방안

한국LP가스공업협회



Ⅰ 배 경

① '90년이후 가정의 취사 · 난방용 연료가 LPG에서 LNG로 대체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망의 확충으로 LPG사용가구 및 수요감소세 지속

○가정 · 상업용 LPG(프로판) 수요는 '07년 기준, '01년 대비 21.6%가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는 무려 40.1% 증가

○'01년을 기점으로 LNG사용가구수가 LPG사용가구수 추월

LPG-도시가스 수요家수 및 수요 추이

[단위:천세대, 천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LP가스수요가수 (보급률 %)	8,231 (48.2)	7,923 (45)	7,840 (43.5)	7,676 (40.6)	7,076 (37.1)	7,467 (37.7)	7,329 (36.2)	-
프로판 가정/상업용 수요	2,351	2,231	2,046	1,976	1,905	1,815	1,844	1,816
도시가스수요가수 (보급률 %)	8,691 (50.9)	9,496 (53.9)	10,170 (56.4)	10,888 (57.5)	11,592 (60.8)	12,116 (61.2)	12,680 (62.7)	-
도시가스 수요	10,300	11,194	11,979	12,504	14,033	13,957	14,449	15,341

주) 지경부 가스산업통계 2008, '07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② LPG가격의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 가중

○LPG가격의 급등으로 특히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등 서민계층

의 어려움 가중

○LPG가격 상승 추이

구분	'02	'03	'04	'05	'06	'07	'08.7
프로판(원/kg)	887.33	980.04	1,050.16	1,131.50	1,242.67	1,330.55	1,884.65
증감		10.4%	7.2%	7.7%	9.8%	7.1%	41.6%
자동차용 부탄(원/ℓ)	457.69	567.38	673.94	723.36	747.86	773.77	1,067.24
증감		24.0%	18.8%	7.3%	3.4%	3.5%	37.9%

※자료:한국석유공사

③ 중산층 이상 가구는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LPG나 연탄 등 사용

○ LPG는 주로 도시 외곽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인 산동네, 달동네, 재래시장 및 지방의 농어촌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서민연료임

– 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08.3.25)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품목에 LPG 포함

II 문 제 점

① LPG사용가구에 대한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미흡하여 고유가 충격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고스란히 전달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차원의 가격통제가 시행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나, LPG는 시장자율적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LPG소비자는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음

– LPG는 LNG와의 유효열량 대비 2.3배 더 비쌈

LNG-LPG 가격비교

구 분		'07.7월		'08.7월	
		LNG(원/㎥)	프로판(원/kg)	LNG(원/㎥)	프로판(원/kg)
소비자 가격	가 격	661	1,349	710	1,884
	증 감			7.4%	39.6%
유효열량(천 ㎉ 가격 (비교지수)		74 (100)	132 (178)	79 (100)	184 (232)

주) LNG : 서울시 주택난방용 가격, LPG : 7월 3주 석유공사 전국 판매점 평균가격 기준

② 최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LPG가격 급등은 LPG를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필수 지출비중을 증가시켜 부담 가중

○ '08년 7월 현재 '06년 대비 LPG 소비자가격은 51% 폭등하여 '06년 대비 12% 상승에

그친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국제 유가변화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 부담에 노출

○ 정부의 상반기 가스요금 동결방침(적자 보전)과 각계의 반대로 정부의 도시가스 인상 방침이 완화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LNG의 경우 도입가격의 상승 등에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LNG 소비자는 보호를 받고 있음

○ 이에 반해 LPG 사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유가 안정대책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침

석유 가스별 제품가격 비교

구분	국제가격		소비자가격	
	원유(Dubai) ($/Bbl)	LPG(프로판) ($/톤)	프로판 (원/kg)	도시가스(원/㎥) 서울기준
2006년	61.55	554.88	1,242.67	632.83
2007년	62.36	593.88	1,330.55	664.86
'08년 7월	123.58	905.00	1,884.65	710.74
('06년 대비)	100%	63%	51%	12%

주) 1. 프로판은 판매소, 도시가스는 개별난방가격 기준임('08.7월 3주차)
2. 원유 Dubai 가격은 '08 7월 23일 기준, 프로판 국제가격은 CIF 기준
3.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E1

③ LPG사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LNG 사용계층과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 야기

○ LPG 사용가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심 산동네 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주로 공급되어 연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사회적 약자의 설움 야기

○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정책을 시행중이나 민간사업자 주도인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취약

– '08.3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를 20원/kg(종전 40원/kg)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 또한 동절기에 탄력세율을 적용, 30%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저소득층 LPG사용자 지원방안 마련 시급

Ⅲ 저소득 LPG사용자 지원방안 건의

◇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시 미흡한 LPG사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LPG · LNG 사용자간의 형평성있는 지원대책 마련

1. 개별소비세 폐지

① LPG는 전국 가구의 약 36%인 730여만 가구가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

도로 서민연료 · 청정연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예전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前 특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LPG사용자의 부담 가중

○LPG는 도심 산동네, 농어촌등 LNG 배관이 설치되지 못한 낙후지역의 서민연료로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우수한 연료임

– 현재 법정세율 40원/kg에서 20원/kg으로 경감('08.3.28)

○일부 인하가 아닌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필요

※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예상 세수 감소분

● '07 LPG(프로판) 판매량 3,133천톤 (지경부 에너지산업통계)

▶ 세수감소분 : 약 627억(3,133천톤 x 20원)

2. 부가가치세 면제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품목에 LPG포함 요청

※서민생활 필수품 52개 종목에 LPG 포함 ('08.3.25, 정부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LPG등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에 따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를 마련

○ 장기적으로 수입 · 충전단계에서의 부가세도 면세되는 영세제도를 도입하여 LPG사용자의 지원 강화 필요

※ LPG 부가가치세 영세에 따른 예상 세수 감소분

– '07년 LPG(프로판) 판매량 3,133천톤(지경부 에너지산업통계)

– '07년 전국 프로판 평균 가격 1,330원/kg(석유공사 모니터닝)

▶ 세수감소분 : 약 4,167억원(3,133천톤 x 133원)

3. 저소득 LPG 사용가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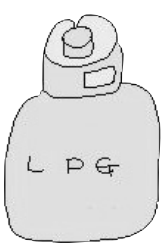
1 LPG 主 사용자인 저소득계층과 LNG 사용자간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 지원

○ '08.7 기준 소비자 가격은 '07년 대비 약 40% 급등한 상황이며 이러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증가는 궁핍한 서민경제의 악화 초래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월 2만원 보조
○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세 면제와 더불어 LPG사용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초로 한 취사 · 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필요
–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여도 가격 인하폭의 한계가 있으므로 LNG사용자와의 사회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 대비 LPG 차액 지원시 필요 예산 추정

1안) LPG사용가구 전체 지원
- LPG · 도시가스 유효열량 대비 차액 : 1,064원/kg
- LPG사용 수요가수(가정용) : 6,682,164가구('07년 말, 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 가정용 추정 소비량 : 1,069천톤('07년기준, 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 수요가별 연 사용량 : 159kg(1,069천톤 / 6,682,164가구)
- 1개 수요가별 지원액 : 169,176원(159kg X 1,064원)

▶ 연간 총 필요예산 = 1조 1,305억원 (169,176원 x 6,682,164가구)
주) 프로판 1,884.65원/kg, 도시가스 710.74/㎥ 기준

2안) LPG사용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지원
- 추정 가구수 : 1,002,324가구 (전체가구중 15%)

▶ 연간 총 필요예산 = 1,696억원 (169,176원 x 1,002,324가구)

〈 프로판 용도 〉
- 취사 · 난방용 : 산동네, 달동네, 도서, 벽지 등 LNG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상업용 : 음식점 등에서 사용
- 산업용 : 산업체 및 농장 등에서 프로판 및 부탄을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난방 및 가열, 건조, 표면처리, 용접 절단, 용제, 온실재배,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용도로 사용함.